



정읍서, '제1회 장애청소년 공감 법콘서트' 열려

정읍에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웃고 공감하며 법의 가치를 체험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14일 정읍YMCA 녹두홀에서 열린 '제1회 장애청소년 공감 법콘서트'가 250여 명의 청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행사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협의회(회장 황명현)가 주최하고, 정읍시장에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다. 이학수 시장과 민경준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 수석검사와 함께 자리해 학교폭력 예방의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행사의 취지를 응원했다. 이번 콘서트는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미술 공연과 교육을 접목한 창의적 구성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법, 법적 보호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미술사의 퍼포먼스에 담긴 메시지들은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황명현 회장은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건설현장 품질 향상 실무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17일 공사 감독과 현장대리인 47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현장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61조까지 각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공 및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실무교육은 전북본부 하대식차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47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 교육, 품질 관련 주요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사례전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토론회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장려상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최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열린 '2025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통일한반도를 마약청정 국가로 조성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마약 퇴치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안보 체제 내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보건 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아우르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 심사위원과 청중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창소방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 다중이용시설 내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방화문을 고정시키거나, 소화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인에게는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박유진·양은희 간호사, 연구 논문 ‘주목

한국 성인 대상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 연구… 국제학술지 대한간호학회지 최신호에 소개

특정 포도당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간호부 박유진 간호사(응급실)와 양은희 간호사(외과 전담)의 연구 논문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인 대한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트리글리세리드·포도당 지표(TyG index)와, 이를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WC), 신장 대비 허리둘레 비율(WHR)과 결합한 TyG-BMI, TyG-WC, TyG-WHR 지표들의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KoGES) 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 40~69세 성인 6,816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연구 결과 포도당 지표와 그 파생 지표들 모두 당뇨병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 지표가 상위군 일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박유진 간호사



양은희 간호사

나왔다. 포도당 지표는 또한 기존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보다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 한국 성인의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박유진 간호사와 양은희 간호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TyG index 및 그 관련 지표들(TyG-BMI, TyG-WC, TyG-WHR)이 한국 성인의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에 효과적인 지표임을 확인했으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연구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을 빛낸 학생 선수들에 감사”

전북교육청, 전국소년체전 포상격려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전주N타워 컨벤션웨딩홀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및 유공학교 포상격려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24~27일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35개 종목에 771명이 참가해 금 14개, 은 17개, 동 28개 등 총 5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단체 구기 종목에서는 동대부속금산중학교(전북현대 U-15) 축구 금메달, 근영중학교 배구 2위, 전주송전초등학교 농구 3위, 이리송학초등학교 핸드볼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단체 종목에서는 김도 15세 이하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테니스 12세 이하(개인단식) 2위, 스포르테니스 15세 이하(개인단식) 2위, 펜싱 15세 이하 이리북중(E) 2위, 이리중(S) 3위, 배드민턴 남·여 12세 이하(전북선발) 2위, 롤러 15세 이하 부에서 3위의 성과를 거뒀다. 개인 종목에서도 육상 3,000m, 포환던지기, 높이뛰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수영 평영 50m·100m, 점영 50m



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외에도 레슬링, 씨름, 태권도 등에서 총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학교에는 최고 2,500만원(단체종목 금),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최고 800만원(단체종목 금), 메달을 획득한 학생 선수에게는 40만~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선수 여러분, 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 교장선생님, 학부모님까지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암생존자와 가족 응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최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총 40여명과 힐링행사 열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6월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해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행사'를 성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암생존자 주간의 첫 번째 행사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암센터가 공동 지원하는 산림 치유와 연계한 암생존자 건강증진 행사로,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암생존자 및 가족 40여명과 함께 피톤치드 자연 경관 등을 몸소 느끼며 걷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오감경기(금속경기)'와 숲속식물로 장식한 친환경 액자에 본인의 마음을 글로 쓴 후 소감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캘리그라피 행사 '마음을 담다, 숲을 담다'를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암생존자 주간의 두 번째 행사인 '암 치료 후, 체력 팽팽'은 국립암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지원하고 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주요 암 치료를 마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해 암생존자 22명이 전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은 후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은기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암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집 근처 숲속 걷기, 체력 증진 운동 등을 통해 암 너머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금길                                                        |                                                                                                              |                                                                                                         |                                                                                                  |
|---------------------------------------------------------------------------------|--------------------------------------------------------------------------------------------------------------|---------------------------------------------------------------------------------------------------------|--------------------------------------------------------------------------------------------------|
|                                                                                 |                                                                                                              |                                                                                                         |                                                                                                  |
| <b>전주매일</b>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                                                                                                              |                                                                                                         |                                                                                                  |
|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                                                                                                              |                                                                                                         |                                                                                                  |
|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                                                                                                         |                                                                                                  |
|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                                                                                                              |                                                                                                         |                                                                                                  |
| 전주지사 010-9645-4113<br>삼천지사 010-2333-4791<br>서신지사 272-9417<br>호지지사 010-6645-9935 | 중앙지사 010-9088-6874<br>인후지사 246-6855<br>송천지사 255-2404<br>팔복지사 253-6844<br>군산지사 010-6789-0038<br>익산지사 659-9923 | 남원지사 632-3996<br>김제지사 545-1227<br>남원지사 632-0995<br>순창지사 653-0444<br>부안지사 010-2425-4182<br>고창지사 563-6999 | 임실지사 010-9642-2725<br>진안지사 433-3064<br>정읍지사 536-3787<br>정수지사 010-3682-6157<br>무주지사 010-2300-4253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전주교대, 전국교원양성대 교무처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2~13일 이틀간 한옥마을 일원에서 제1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무처장협의회는 전주교육대학교가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교가 되면서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9개 교대 교무처장이 참석해 회칙 제정과 함께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 지사중학교 총동문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임실군 지사면 지사중학교 총동문회(회장 안익태)가 지난 14일 지사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총동문 체육대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지사면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한 사용될 예정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대산면, 일손 부족 농가 찾아 구슬땀

남원시 대산면은 여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일손돕길 추진했다. 이날 20여 명의 직원들은 대산면 내 포도농장을 찾아 포도송이 하나하나 봉지를 씌우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행사는 농촌 교령화로 인해 인력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일손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행사 진행 간 간식과 도시락, 작업도구 등은 일손돕기 참여자가 직접 준비, 농가에 작은 부담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금구면, 어르신들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오산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와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추진된 이번 활동은 봉사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요청에 맞춰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 드렸으며, 직접 끓인 삼계탕을 대접하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처음처럼봉사회(회장 오승석)가 주관했으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한편 시흥시처음처럼봉사회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외국인 대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분하기 제업을 위해 정읍 전북과학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와 그 대응법, 신종마약 및 처벌법규, 성폭력 대표 사례와 대응 요령, 키보드 등 교통법규 안전수칙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한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시청과 퀴즈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안내서를 제작하여 한국에서 주의해야 할 범죄 및 법 위반유형을 알리고 여성간접전화 1366 등 도움이 필요한 번호를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